침례론으로 본 알렉산더 캠벨의 신앙여정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은 19세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가들 중 한 사람, 스톤-캠벨 운동(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핵심 창시자, 교회 개혁가, 인습타파자, 토론가, 정치가, 편집자와 출판가, 설교가, 교육가, 성경학자, 대중연설가, 조직가, 사회개혁가, 신학자였다. 그가 헌신했던 평생의 목표는 신약성경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환원)하고, 그 울타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일치)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유산: 800만 명 규모의 스톤-캠벨 운동, 미국 대통령 3명 배출, 영국 수상 1명 배출,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회중 4,787, 출석교인 1,379,041, 평균출석 288),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회중 3,135, 출석교인 398,072, 평균출석 127), Churches of Christ(회중 11,881, 출석교인 1,422,331, 평균출석 120).

1788년 아일랜드 분리파, 반버거파, 옛빛파 장로교회 목사 토마스 캠벨의 장남으로 출생, 유아 때 세례를 받았고, 칼뱅주의적 신학을 가진 장로교회에서 자랐으나 성장하면서 독립교회주의로 방향을 바꾸면서 세례를 교제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거부했고 유아세례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1808년(20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교(상식철학과 베이컨의 귀납법을 배움)를, 그레빌 유잉의 학교(Seminary)에서 독립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순수 복음과 교회 회복, 성서의 침묵의 엄격한 관점, 교회와 국가의 분리, 회중의 자율성, 매주 주의 만찬, 그리고 단순한 예배에 대해 접했으나 여전히 개혁주의와 유아세례론의 개념들이 깊게 배어 있었다.

1809년(21세) 미국에 도착할 무렵, 장로교의 교회정치제도에 불만을 품고 독립교회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1812년(24세) 첫 딸 제인이 1812년 3월 13일 태어났으나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3개월 후 6월 12일 침수세례를 받았다. 이때 캠벨은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고, 무지 때문에 소홀히 했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한 것이었다.

1820년(32세) 캠벨은 어떤 외적 요소도 구원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강한 츠빙글리적 침례관을 지녔다. 워커 논쟁에서 캠벨은 침례를 구원과 중요한 의미에서 연결하지 않았다.

1821년(33세) 침례교인 헨리 에렛(Henry Errett)이 쓴 소책자를 읽고 침례의 목적에 관한 첫 인상을 얻었다.

1823년(35세) 죄 사함을 침례 행위 안에서 공식적으로만 받으며, 실제로는 믿음의 시점에 이미 받는다(맥칼라 논쟁). 여기서 공식적이란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이다. 캠벨은 침수세례 받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의 구원을 의문시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1824(36세) 「크리스천 뱁티스트」지 12월호에 "사물들의 고대 질서의 회복"(restoration to the ancient order of things)에 대해 첫 글을 쓴 후, 1825년 2월호에 제1편부터 1829년 9월호에 32편까지 실었다.

1827년(39세) 후반기에 존 시크레스트(John Secrest), 제러마이아 바드먼(Jeremiah Vardeman), 존 스미스(John Smith) 및 월터 스콧(Walter Scott) 등이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에서 "죄 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into the name of Christ) 침수세례"를 베풀어 대성공을 거뒀다.

1828년(40세) 「고대 복음」(ancient gospel)이란 주제로 10회 연재했으며, 죄 사함은 침례 안에서 실제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받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침수세례를 통해, 곧 그 행위 자체를 통해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진지하게 주장한다."

1830년(42세) 「죄 사함에 관한 특별호」를 출판할 무렵 그리고 정규 침례교와 분리된 때에 캠벨은 침례라는 행위 안에서 바로 그 순간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죄 사함을 받는다(in baptism one receives, in that act and at that very instant, the remission of his sins, both formally and actually)는 침례관에 최종적으로 도달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그의 신학적 사고에 몇 차례 중요한 수정이 있었고 20여년에 걸쳐서 서서히 발전하였다.

첫 번째 조정: 1809년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는 분리파의 성장 배경에서 나온 교파주의를 거부하고 침례는 교제의 조건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로교적 맥락에서 그는 유아세례가 불확실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정: 1812년 첫 딸이 태어났을 때 이루어졌다. 침수세례와 신자의 침례 문제를 다시 연구한 뒤 그는 모든 신자가 침수세례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유아 때 세례를 받았음에도 자신은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단순한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정규 침례교 목사 마티아스 루스에게 침수세례를 받았다. 이때 캠벨이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1820년 워키 논쟁**은 그가 침례를 구원과 중요한 의미에서 연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1823년 맥칼라 논쟁** 이전에 캠벨은 침수세례 받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의 구원을 의문시하거나 의심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캠벨이 1812년 침례 받을 때 구원받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오히려 무지 때문에 소홀히 했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한 것이었다.

세 번째 조정: 1821년 가을부터 1823년 가을까지 캠벨은 죄 사함을 위한 침례라는 개념을 접하고 숙고했다. 헨리 에렛의 소책자가 이 개념을 소개했다. 그 소책자를 읽은 스콧 및 아버지와의 토론으로 침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고, 맥칼라 논쟁에서 캠벨은 자신의 입장을 침례교 형제들의 입장과 구별했으며, 침례는 죄 사함과 "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연결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침례는 신자의 죄가 앞서 믿음으로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한 침례가 참된 제자, 곧 가시적 교회 구성원의 표지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조정: 1827년 가을과 1827-1828년 겨울에 이루어졌다. 스콧이 회개의 자리와 불안의 자리를 버리고 청중을 죄 사함을 위해 침례의 물로 대담하게 초대하기 시작한 뒤, 캠벨은 침례와 죄 사함의 연결을 더 명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침례는 더 이상 단순한 상징이나 이미 일어난 일의 표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죄 사함이 주어지는

순간, 찰나,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죄 사함이 주어지는 행위 자체로 여겨졌다. 침례 사건은 죄 사함의 순간이었다. 신자의 죄는 믿었을 때가 아니라 침수세례 받았을 때 사해졌다.

이 견해는 정규 침례교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몇몇 교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은 회개의 자리나 불안의 자리를 없앴다(이 점은 "크리스천 커넥션"의 많은 이들도 불편하게 하여 캠벨과의 연합을 막았다). 또한 주관적 체험 속 성령의 역사를 확신의 근거로 삼는 것을 없앴다. 침례 전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배제했고, 침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논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침례교 협의회가 알렉산더 캠벨과 관계를 끊고 그를 규탄하기 시작했으며, 그 모든 조치에는 "물에 의한 구원"(water salvation 혹은 salvation in water) 문제가 포함되었다. 침례교 전체와의 결별은 「고대 복음」 연재에 나타난 침례의 목적에 대한 캠벨의 견해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1809-1828년의 캠벨은 침례관이 고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장로교적 입장(1809)에서 침례교적 입장(1812)으로, 이어 수정된 침례교적 입장(1823)을 거쳐 마침내 고대 복음에 대한 성숙한 견해(1828)에 이르렀다. 오하이오, 켄터키, 버지니아에서 개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정규 침례교와 분리되기 시작할 때 설명된 이 성숙한 견해가 미국 환원운동을 지배했다. 그것은 그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